

커가는 在獨韓國科技協

會長에 김재일 씨 선출

- ◇……在獨한국인 科學技術者들은 앞서 西獨 Fritz- Emmel(Kronberg Frankfurt)에서……◇
- ◇……在獨한국科學技術者協會를 創立하고 制定된 定款에 의해서 활발한 事業을 전개하……◇
- ◇……고 있다.....◇
- ◇……1972년도 在美한국科學技術者協會가 創設되고 두번째로 海外 韓國人科學技術者團.....◇
- ◇……體를 創立하게된 在獨한국과학기술자협회는 김영상, 김재일, 안문, 이재인씨로.....◇
- ◇……구성된 同會設立準備委員들의 수차에 걸친會合등 많은 努力으로 創立케 된것이라.....◇
- ◇……고 한다. 그런데 初代會長에는 김재일 박사를 選出하고 會長團에 의해 各部署의.....◇
- ◇……任員들을 선정한 同會는 會員 확장 및 會誌 발간등 활발한 事業을 벌이고 있는데 듯.....◇
- ◇……일내의 科學技術分野와 접촉 本國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韓國에서 오는.....◇
- ◇……科學技術者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등 그 활약이 크게 주.....◇
- ◇……목되고 있다. 在獨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정관 및 73년도 施行한 事業과 74년도의.....◇
- ◇……事業計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편집부>.....◇

在獨 한국 科技會則 전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이름을 재독 한국 과학 기술자 협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재독(서부 독일 및 서백림) 한국인 과학기술자들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기본 활동

전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명시한 활동을 한다.

1항: 회원 상호간의 접촉과 학술 및 기술교류를 협조한다.

2항: 모국 및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과학기술자들과 회원들의 소식 교환 및 유대 강화를 협조한다.

3항: 모국의 과학 기술처를 위시한 제자연 과학계, 관계, 부서, 연구소, 대학교, 산업 기업체들과의 소식 교환 및 유대 강화와 상기 제 기관내의 각종 특수 전공 분야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구하는데 대한 연락을 협조한다.

4항: 회원들과 모국 과학 기술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개별적인 제안에 대한 연락을 협조한다.

5항: 모국의 과학 및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회원의 일시 또는 영구 귀국 유치 활동(또는 외국인 저명인사 과학 기술자를 모국에 초빙) 사업에 대한 알선을 협조한다.

6항: 과학 기술 분야에 유학 및 연수생으로 독일에 도착하는 후진들을 후원한다.

7항: 기타 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을 한다.

科 學 街 뉴스

제 4 조 주소

본 협회의 주소는 일정한 장소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 년도

본 협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회칙 변경 및 추가

회칙 변경 및 추가는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실행된다.

세칙 및 부칙의 변경 및 추가는 평의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항 : 정회원

2항 : 준회원

3항 : 명예 회원

제 8 조 정회원의 자격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과학 기술분야에 대학과정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독일의 기술전문학교 출신포함),

제 9 조 준회원의 자격

독일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 과정 또는 동등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자

제 10 조 명예 회원의 자격

명예 회원은 과학 기술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 또는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 11 조 입회

본 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탈 퇴

탈퇴는 본인이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서 성립된다.

제 13 조 회 비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 회원은 회비 납부를 요하지 않는

다.

제 14 조 정권 및 제명

회원중 본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하고 본 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본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5 조 임원의 종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항 : 회장 1명

2항 : 총무 1명, 재무 1명, 편집 1명

(재무와 편집을 총무가 겸임할 수도 있음)

3항 : 감사 2명

4항 : 평의원

제 16 조 임원 선출

1항 :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정회원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서 선출한다.

2항 : 총무, 재무, 편집은 회장이 정회원중에서 지명을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항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평의원중 2명을 선출한다.

4항 : 평의원은 각 지역별 회원들의 모임에서 한사람씩 선출된 지역 대표들이다. 다른 임원들은 자동적으로 평의원이 된다.

지역별 평의원 선출방법은 회칙의 세칙에 따른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1항 :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들은 다음 사업 년도에 재선될 수 있다.

2항 :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따로 회칙의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선한다.

3항 :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

여기 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1항 : 회장은 회무를 통솔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2항 : 회장의 유통시에는 총무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항 :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소정의 회무를 의결한다.
- 4항 : 지역 대표 평의원은 해당 지역의 제반 연락 사항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 5항 : 총무는 본 협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사항을 기록 보존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협회의 업무를 시행한다. 재무와 편집은 총무를 보좌하여 업무를 시행한다.
- 6항 :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회원들에게 보고 한다.

제 4 장 고 문

제19조 고 문

- 1항 : 본 협회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2항 : 고문은 본 협회의 활동과 육성에 공헌을 한 사람 또는 과학 기술 분야에 학식 경험에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의원회의 추천 결의로 정한다.
- 3항 :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5 장 회 의

제20조 회의의 종류

- 1항 :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역원회로 나눈다.
- 2항 : 총회를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 매년 1회 회장의 명의로 소집한다.
임시총회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청구할 때 회장의 명의로 소집 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활동

- 1항 : 정기 총회에서 역원회는 전년도 결산 및 사업을 보고하며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며 명년도 사업 계획을 제안한다.
- 2항 : 회칙의 변경 및 추가를 논의 결의 한다.
(회칙의 변경 및 추가를 위한 제의 상정은 세칙에 따라 이행한다)
- 3항 : 평의원회는 신 사업년도의 역원선출을 제안하여 정기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
- 4항 : 임시 총회는 제안 명시된 의제를 논의 의결한다.

제22조 역원회

역원회는 회장, 총무, 재무, 편집,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23조 역원회의 기능

본 협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국한된 과업을 수행한다.

제24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역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의 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평의원회의 기능

- 1항 : 회장의 추천
- 2항 : 세칙 제정, 변경 및 추가
- 3항 :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 4항 : 기타 평의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회의 성립

총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기타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7조 의결 방법

각회의 의결은 정회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 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科學街ニュース

회칙 및 세칙 수정의 경우는 제6조에 준한다)

제 6 장 재 정

제28조 경비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항 : 회원의 회비

2항 : 찬조금

3항 : 기타 수입

제29조 회계 년도

사업년도와 같음(제1장 제5조)

본 협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책택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事業計劃

본 사업년도의 사업 목표는 창립 당시 결정된 회칙에 정하는 목적에 따르는 기본 활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업 내용을 실행함.

사업 내용

1. 회원 확충과 재독 한국 과학 기술자 실태조사.

재독 한국 과학 기술자들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본 협회의 회원 확충과 사업계획 수행에 기초가 되게 하며 본국내의 관계기관의 해외기술자 활용 장기 계획에 응할 수 있도록 함.

가. 회원 입회 대상자

회칙이 정하는 회원자격 소지자

나. 실태 조사 대상

독일내의 과학기술계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있는 한국인 전체

다. 실태조사 사항

현주소, 학력, 경력, 전문분야

2. 재독 한국 과학기술자 협력 법인체 등록

본 협회를 법인체로 등록함으로서 사업계획 수행에 따르는 제반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편리하도록 함.

3. 독일내의 과학 기술분야(연구소, 대학교 학회 사업체)와 접촉을 갖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본국내의 동일한 기관들과 유대를 갖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 또

는 이를 추진 협조함.

가. 본 항의 수행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조직 운영함.

나. 특별 위원회 위원 대상은 독일내에 장기 거주한 한국 과학 기술자로, 해당 전문분야에 경험이 풍부하며 또한 독일사회 그 분야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함.

다. 본 특별 위원회를 각 전문분야의 전공을 가진 사람 다수로 조직하고 협회의 임원교체에 관계없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추진함.

4. 본국내의 과학 기술자를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독일을 방문할 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함.

5. 재독 과학 기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 강연회를 가짐.

가. 학술 강연적 준비 위원회 조직

나. 예정 시일과 장소

(1973년 9월 15-16 양일간 Frankfurt 근처)

다. 연제와 내용은 타분야의 과학기술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일반화 시킨것으로 국한함.

라. 제1회 학술 강연회에 한해서는 초빙 연사들의 강연으로 국한함.

6. 회보 발간

회보를 발간하여 재독 과협내의 제반소식, 회원의 동정, 본국 및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소식, 본국 제반과학 기술 기관들의 활동사항, 한독 과학 기술 교류의 발전사항, 구직, 구인등을 기재하여 제반 연락의 매개체로 함.

가. 발행 회수 : 년 4회

나. 배부 : 회원, 회원이 아니더라도 구독을 원하는 사람

7. 고문 및 명예 회원 선정

회칙에 기준하여 수명의 고문 및 명예 회원을 선정한다.

8. 세칙 및 부칙 작성

본 협회를 확대 발전시키고 사업 계획 실행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회칙이 요구하는 제반 세칙 및 부칙을 작성함.

原資材 情報 센터 業務 開始

8個業體의 정보자료 전달받아

國內에서 最初로 新設된 原資材情報센터가 1月 19日에 들어 그 첫始務를 보게 되었다.

이날 電子輸組의 金鍾洙전무는 三正社등 8개業體의 수입인증서(IL)사본을 청부한 정보자료를 同센터 李春和 理事長에게 전달, 新設이래 첫業務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原資材情報센터에 전달된 정보자료는 三星NEL의 L-36리드 11만 2,500개를 비롯하여 8개業體의 소요원자재 81만 3천 5백 팔리어치가 된다.

商工部의 주선으로業界의 代表들이 모여 資材 및 部品의 국산대체를 적극 추진키 위하여新設하게 된 동센터는 그 운영으로 전자제 품수출업체는 소요原資材 및 部品스페크와 수량을 IC발급후 1주일 이내에 輸組에 보내게 되며 輸組은業體로부터 받은후 곧 FIC로 보내 품목별로 분석을 끝낸뒤 국산대체가 가능한 品目이나 部品은 生產業體에 연락 自給化에拍車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처음으로 넘겨진 資料는 部品메이커들이 提出한 기초원자재로서 소량이며 또 대체품목이 많지 않으므로 開發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新規工場 건설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셀트 메이커의 資料에선 국산부품의 공급확대를 꾀할것이라고 한다.

한편 業界나 學界에선 原資材開發에 있어서企業性的 한계를 年間 1백 50만 팔리의 수요기준으로 보아 용도가 큰 PCB는 75년에 땀납은 76년에 각각 開發이 가능할것이라는 견해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原資材 품제를 實現키 위해서는 用度가 큰 마이크로 모터등 14개 品目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비축액 7억원과 부대비용을 포함 총

12억 7천 5백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리라한다.

이번 原資材情報센터로 넘겨진 業體의 生產品目과 輸入額은 다음과 같다.

- ▲ 三星NEL(부라운관)=1,500,000
- ▲ 三正社COS(코일)=11,600
- ▲ 三和콘센서=69,000
- ▲ 오리온電子(PLB)=153,000
- ▲ 一信產業(크리스털·유니트)=9,000
- ▲ 三美企業(스피커)=31,000
- ▲ R오브(저항기)=286,000
- ▲ 同和電子(축전기)=69,000

造景學會 첫定期總會

韓國造景學會는 지난 11일 하오 2시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소강당에서 제 1회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1973年度 決算 및 74年度의 豫算에 관한 事項報告와 74年度 主要事業計劃을 검토, 결의하였다.

이날 同總會에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金允基 會長을 비롯해서 많은 래빈이 參席하였는데 科總 金允基 會長은 祝辭를 통하여 『戰爭으로 황폐해진 우리 나라의 국토는 60年代에 들어 박대통령의 강력한 시책으로 국토복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고도로 개발과 자연환경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즈음해서 造景學會의 탄생으로 보다 좋은 국토복화사업과 자연환경 사업에 큰 이바지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치하였다.

~~~~~科學街 뉴스~~~~~

그리고 이 날 造景學會는 定期總會에 이어 “韓國造景界의 當面課題에 關한 Seminar”를 가지 고 研究토론을 했는데 演題와 參席人士는 다음 과 같다.

◇ 造景環境制度

민경현—造景學會 理事
윤세달—내무부도시담당(대지)
박창진—건설부 공원과장
김형무—서울시 조경과장

◇ 造景教育制度

노웅희—서울대 環境大學院長
안건용—서울대 교수
장문기—홍익대 교수
이종필—영남대 교수

金孝經 會長 留任

공기조화·냉동학회 정총

1月 12日 下午 2時 公기조화·냉동공학회는 청소년회관 3층 강당에서 第二回 定期總會를 갖고 會長廳 및 任員을 개선했다.

이어서 1973年度의 會務報告와 감사보고 및 1974年度의 豫算과 事業計劃등을 심의 통과 시켰는데.

會長에는 理事長인 김효경(서울大學校 工科大學教授)씨를 유임 시켰고 副會長 2名에는 서정일(한양공대 교수)씨와 정용후(감사원 기술실장)씨를選出했다.

한편 定期總會開催에 앞서 있은 學術세미나에 서 한국科學技術團體總聯合 金允基 會長은 『74年은 科學技術人들의 상호유대 강화로서 總和를 이루어야 선진국가에 따라갈 수 있는 科學technology振興을 이룰 수 있게 될것이다』고 강조. 「모든 學會와 研究團體의 研究開發에 크게 기대가 되고 있으며 더욱이 “공기조화·냉동공학회”的 研究

問題는 科學technology振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金允基 會長은 『維新課業을 계속 추진해 나아가므로서 科學technology振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科學人들은 “새마을 기술봉사”에 指導的인 역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有能한 科學교수 초청

싱가풀 科學technology 長官 협조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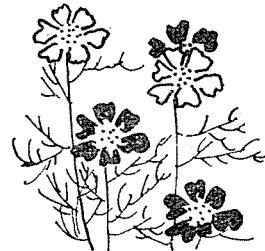
앞서 韓國의 科學technology界 및 產業界를 시찰하고 귀국한 “싱가풀” 科學technology長官겸 大學總長인 Toh Chin Chye박사는 韓國의 유능한 教授를 초청 이에 대한 협조를 科技處 요청 해왔다.

알려진바에 依하면 초청 교수의 대우는 싱가풀 땔라 1,100㌦라에서 3,500㌦라고 하는데 초청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Civil Engineering
2. Electrical Engineering
3. Industrial and System Engineering
4. Mechanical Engineering
5. Architecture and Building

응모주소—The Registrar University of

Singapore 10



維新體制는維持돼야

科總·1.8조치 지지聲明

- ◎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지난 15일 朴正熙 大統領의 1.8緊急措置에 對한.....◎
- ◎ 支持 聲明을 發表했다.◎
- ◎ 科總은 이聲明을 通해서 『10萬科學技術人은 總和된 意見으로 “憲政秩序의 確立”을◎
- ◎ 주장하면서 10萬 科學技術人의 굳은 결의는 國가의 百年之大計를 위한 맡은바 自己 所◎
- ◎ 任에 誠實히 全力を 傾注하고 있다』고 斷했다.◎
- ◎ 또한 이성명서는 維新體制 이후의 韓國經濟는 科學技術을 바탕으로하여 高度經濟成長이 이루어◎
- ◎ 졌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歷史上처음으로 安定된 環境속에서 진지한 研究와 發展에 박차를◎
- ◎ 가하고 있는 科學人들은 민족 번영을 위해 維新體制는 계속 維持돼야 한다고 呼訴했다.◎
- ◎ 『朴正熙 大統領閣下의 이번 英斷은 科學技術의 暢達振興으로 民施中興을 이룰 수◎
- ◎ 있는 捷徑이라고 確信 우리 10萬 科學技術人은 總和된 決意로 이를 支持聲明한◎
- ◎ 다』라고 꼴을 맺은 同성 명서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聲明書全文

우리 10萬 科學技術人은 朴正熙 大統領閣下의 이번 1.8緊急措置는 國家安全保障과 民族中興을 爲한 一大 英斷이었음을 再確認하고 다음과 같이 總和된 意見으로 支持 聲明한다.

一. 10萬 科學技術人은 憲政秩序의 確立을 主張한다.

激變하는 世界情勢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우기 開發途上國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 밀려오는 波長은 매우 深刻하기 까지 한 것이다.

여기에 北韓의 挑發行爲는 끊임없이 繼續되고

있어 우리는 寸刻도 放心할 수 없는 現實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 10萬 科學技術人은 百尺竿頭에 있는 國家의 百年大計를 위해 誠實히 그 所任을 다하려고 全力を 傾注하고 있다.

象牙塔 또는 各種研究機關에서 그리고 產業戰線에서 低開發國을 中進國으로 또 先進國圈을 向해 계속 精進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全體科學技術人이 總和를 이루고 國力培養에 臨하고 있음을 무엇보다도 憲政秩序가 維持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民族은 찬란한 歷史를 가진 文化民族이라고 自負한다. 그러나 憲政秩序가昏迷했던 近世의 우리民族은 무엇을 어떻게 했던가, 三千里 강토는 植民地가 되었고 國民은 헐벗고 굶주렸으며 文化는 뛰떨어져 결국 低開發國의 초라한 모습으로 命脈을 이어 왔을 뿐이다.

이제 두번 다시 이런 前敵을 跛을 수는 없다.

~~~~~科學街 뉴스~~~~~

그러므로 우리 10萬 科學技術人은 어떠한 일 이 있어도 憲政秩序는 確立해야 한다고 거듭 主張한다.

二. 10萬 科學技術人은 維新體制의 維持를 呼訴한다.

우리는 近年에 와서 急激하게 經濟高度成長을 이루었으며 이는 全國民이 周知하고 있는 事實이다.

특히 維新體制 以後의 우리의 經濟는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그 基盤을 더욱 鑑固히 다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科學技術의 水準은 그 나라의 國力의 尺度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經濟高度成長을 이룬 것도 科學技術의 뒷받침 때문임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維新憲法 第123條에 「國民經濟의 發展과 이를 爲한 科學技術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고 明示한 것은 우리 憲政史上 처음의 일로 劃期的인 것이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維新體制 以後의 우리나라 科學技術은 民族中興의 一翼을 擔當하여 크게 成長해 왔던 것이다.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安定된 環境 속에서 친지하게 研究와 開發에 拍車를 가하게 되었다. 外國으로 流出했던 우리나라 高級頭腦는 安定된 祖國의 품으로 다시 들어오고 각分野別로 풍요한 來日을 期約, 精進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8年부터 73년까지 先進國에서 歸國한 우리나라 科學技術者들은 64名이나 되며 一時歸國이 90名에 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10萬 科學技術人은 民族繁榮을 爲해 維新體制는 계속 維持해야 한다고 呼訴하는 바이다.

三. 1.8大統領 緊急措置를 積極 支持한다.

世界的으로 政局이 不安 또는 混亂한 나라의 科學技術은 항상 退步를 免치 못했음을 우리는 歷史를 通해 보아 왔다.

우리도 亦是 이러한 歷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의 遺產을 물려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維新體制가 成熟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科學技術은 生氣를 되찾고 있다.

질식할 것 같이 密閉된 地下에서 光明天地로 솟아올라 이제 겨우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빛과 물과 공기를 고루 알맞게 주기만 하면健全하게 成長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나 폭우는 오히려 成長을 방해하고 아주 生命마저 빼앗아 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10萬 科學技術人은 科學技術의健全한 成長과 育成을 爲해 維新體制에 어떤挑戰도 拒否하는 바이며 維新體制를 確固히 하기 爲한 이번 1.8措置를 적극 歡迎한다.

또한 朴正熙 大統領閣下의 이번 英斷은 科學技術의 暢達振興으로 民族中興을 이룰 수 있는 捷徑이라고 確信, 우리 10萬科學技術人은 總和된 決意로 이를 支持聲明한다.

1974年 1月 15日

社團法人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金允基
副會長	權寧大
"	金海琳
"	玄信圭
"	洪文和
"	金東一
外	127會員團體長

